

공간으로 두 번째 기회를 건네다

세컨찬스 라이브러리

최혜진
오즈앤엔즈 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1,891m ²
건축면적	327.85m ²
연면적	2,550.25m ²
규모	지상 2층
높이	8.1m
건폐율	28.75%
용적률	36.7%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종목구조
구조설계	터구조주식회사, (주)수피아건축
설계	최혜진, 박여진, 송지호
시공	주식회사 티피에이종합건설
기계·전기설계	(주)청림설비, (주)다우티이씨
설계기간	2022.1.~2022.9.
시공기간	2022.10.~2023.10.
건축주	(재)도서문화재단씨앗, (사)세상을품은아이들



하늘에서 본 세컨찬스라이브러리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그릇된 선택 속에서 무너져 버려
범죄자로 낙인 찍힌 아이들이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이곳에 보내진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Second Chance)를 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Second Chance Maker)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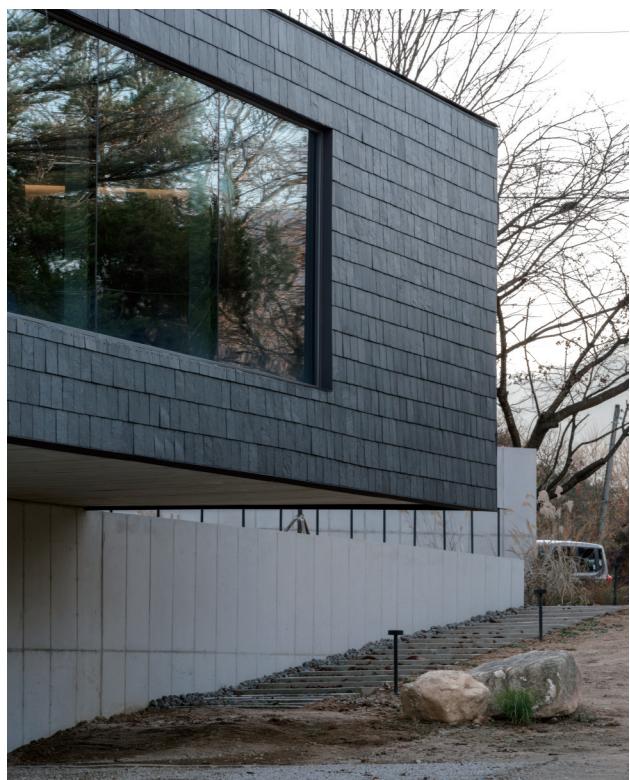


캠퍼스의 갈라진 길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매스





남쪽 창과 정원



상 콘크리트와 돌로 마감된 외부
하 대지의 경사에 따라 빙운 하부



상 북측 통창과 내부 공간
하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진 공간



상 삼각형 꼭지점을 향해 모이는 중목구조
하 자유롭게 채워지는 중앙 공간

삼각형의 형태와 노출된 중목구조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과한 환대의 경험을 공간적으로 전해 주고자 하는 건축가로서의 의도였다. 세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삼각형의 형태는 이곳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세상으로 뻗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딱딱하고 거친 외관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보드라운 내면과 무한한 가능성を持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외부는 차가운 돌과 콘크리트로, 내부는 목재로 디자인하였다.



© 원형설

세온찬스라이브리리의 삼각형 지붕

두 번째 기회를 건네는 도서관

세컨찬스라이브러리는 ‘넘어진’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건네는 도서관이다. 새로운 나, 새로운 타인, 새로운 세상에 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공간으로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이 운영하며, 도서문화재단 씨앗의 후원으로 조성되었다. 세상을품은아이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가치를 되찾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돋는 단체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그릇된 선택 속에서 무너져 버려 범죄자로 낙인 찍힌 아이들이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이곳에 보내진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Second Chance)를 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Second Chance Maker)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곳이다. 우주로, 티티섬, 라이브러리 피치 등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해 온 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 이곳의 청소년들을 위해 도서관 건축을 후원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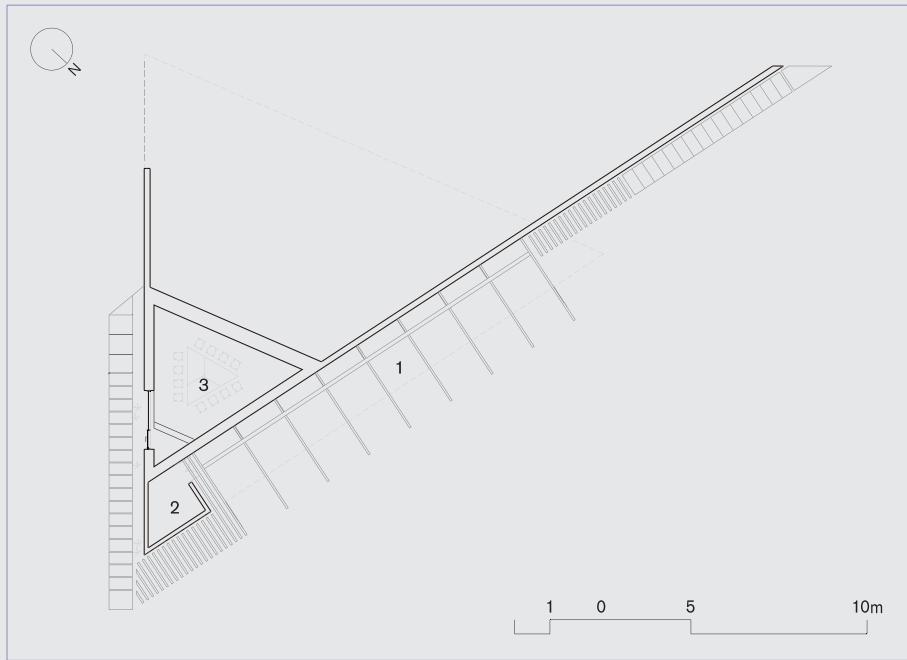
⑥
인간
의
도



상 캠퍼스의 갈라진 길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매스
하 하늘에서 본 세컨찬스라이브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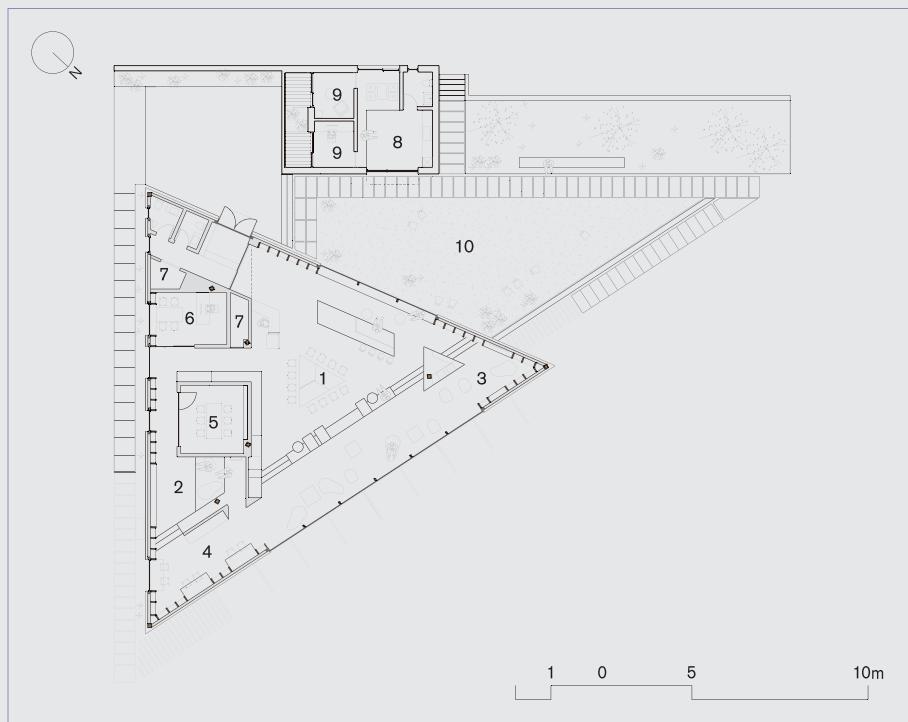
세상과 연결되는 공간, 도서관

포천의 북쪽 외곽에 위치한 세상을품은아이들은 낡은 건물을 인수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 배우는 공간인 스네일랩, 식당과 예배당 등 필요한 공간들을 하나씩 고쳐 가며 만들어 가는 중이었다. 별다른 물리적 경계 없이 사방이 자연으로 둘러싸인 캠퍼스는 에너지가 넘치는 청소년들이 지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지만 새로운 만남과 교류가 제한적인 곳이다. 기존의 공간들은 세상과 단절을 기반으로 한 내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새로 들어서는 도서관은 아이들이 세상과 만나고 연결되는 공간으로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획되었다. 책과 사람을 통해 알지 못했던 자신을 새롭게 만나고 몰입을 경험하며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발표하는 공간으로 아이들의 변화가 이곳의 콘텐츠가 되는 도서관을 상상하였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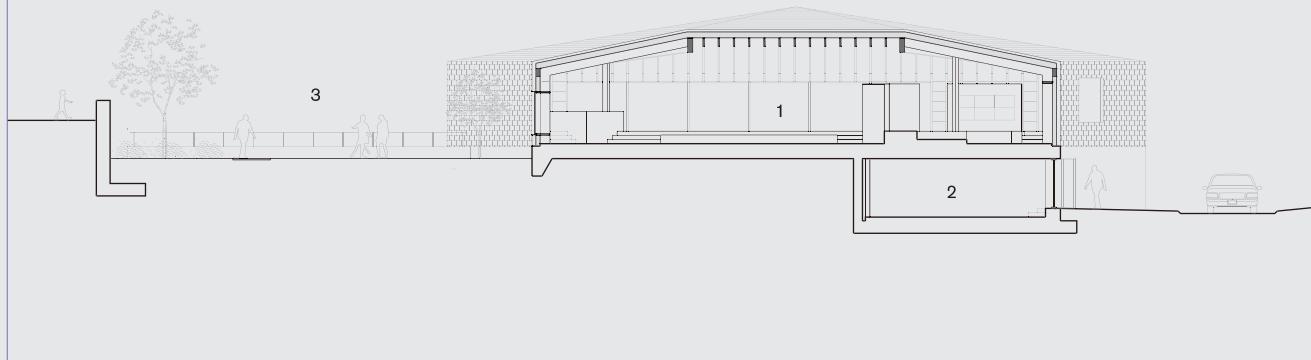
- 1 주차장
- 2 창고
- 3 벙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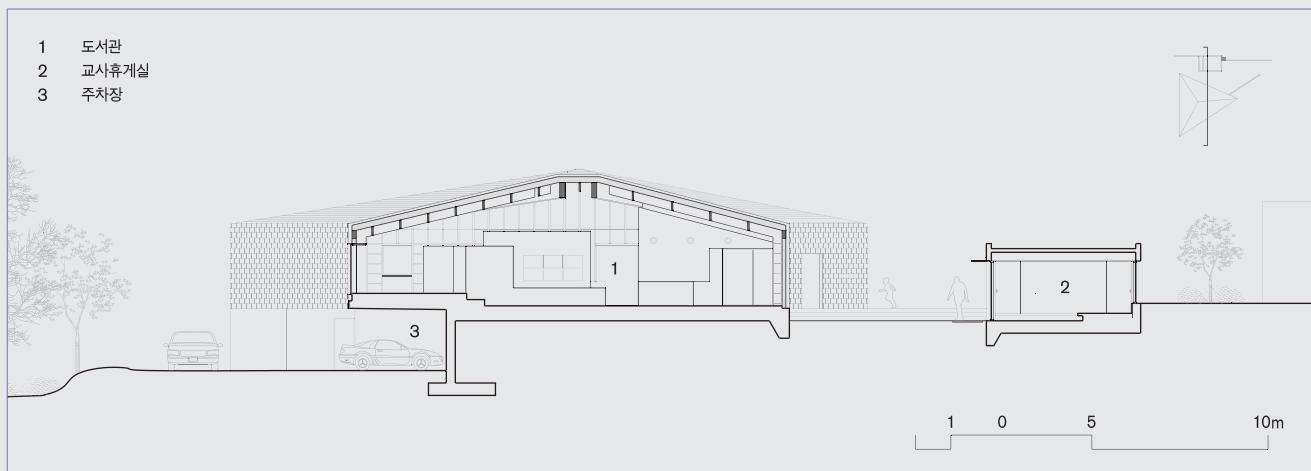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1 도서관
- 2 영화 존
- 3 음악 존
- 4 작가 존
- 5 스튜디오
- 6 사무실
- 7 창고
- 8 교사휴게실
- 9 교사연구실
- 10 정원

- 1 도서관
- 2 병카름
- 3 정원



- 1 도서관
- 2 교사휴게실
- 3 주차장



단면도



⑥
건축
설계



상 콘크리트와 돌로 마감된 외부
하 대지의 경사에 따라 띄운 하부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이곳에 오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주변의 환경과 관계들에 의한 것들이었다. 주중 내내 이곳에 머물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도서관 고유의 기능 이외에도 기존 공간에서 부족하던 수업, 발표, 공연, 외부연계행사 등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고, 아이들의 아지트이자 거실이며 선생님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하였다. 이 모든 것을 담기에는 작은 규모의 공간이지만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던 아이들에게 공간이 주는 환대를, 이를 통해 존중받는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나무를 품은 삼각형

입구와 경계가 한눈엔 들어오지 않는 어수선한 캠퍼스 부지 내에 도서관을 지을 위치를 찾았다. 캠퍼스 초입의 경사지에 마련되어 있던 주차장 부지를 도서관의 위치로 선정하였다. 좁은 경사지이지만 캠퍼스의 관문이자 외부와의 접점이 되는 위치로, 산재한 건물들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다. 대지의 형상을 따라 삼각형의 매스를 배치하고 두 개로 갈라진 캠퍼스의 길을 외부 공간으로 연결하였다. 대지의 경사를 활용하여 건물의 하부를 띄워 기존과 같이 캠퍼스 입구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 려진 도서관은 내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24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교사 연구실을 도서관과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담장으로 외부 공간의 방향성을 만들어 분산된 주변 건물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위요된 정원을 만들었다.

단층의 단조로운 공간에 공간감을 주기 위해 삼각형의 중앙을 들어올리고 내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측 멀리 전경이 보이는 곳과 남측 정원이 마주하는 곳으로 넓게 창을 두어 아이들의 시선이 멀리 밖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차장의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차는 내부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획한다.

지면과 면한 저층부와 교사연구실은 콘크리트 구조로 단단하게 잡아 주고 상부의 도서관은 중목구조로 계획하였다. 삼각형의 형태와 노출된 중목구조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과한 환대의 경험을 공간적으로 전해 주고자 하는 건축가로서의 의도였다. 세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삼각형의 형태는 이곳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세상으로 뻗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딱딱하고 거친 외관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보드라운 내면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외부는 차가운 돌과 콘크리트로, 내부는 목재로 디자인하였다. 삼각형의 형태를 따라 세 개의 커다란 빔과 5개의 기둥이 전체 공간을 만들고 구조와 도서관의 책장을 일체화하였다. 외벽을 따라 도서관의 서가를 배치하고 중앙을 비워 내부에 다양한 이야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함께 만들어 간 도서관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도서문화재단 씨앗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내부를 채웠다.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들을 직접 선정하여 서가를 구성하고 원하는 활동들로 공간을 채웠다. 입구 바로 앞으로는 이곳을 거쳐 간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전시하는 명예의 전당과 학생 사서들이 직접 구성하는 추천서가가 배치된다. 들어서면서 보이는 넓은 창 앞에는 빈백과 만화책을 두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삼각형의 양 코너에는 조용한 필사 공간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영화존, 선생님 눈을 피해 뒹굴 수 있는 다락 공간 등 워크숍을 통해 나온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여 공간을 조정하였다. 가장 높은 삼각형의 중앙은 비우고 큰 테이블을 두고 주변으로 미술 활동과 도서 제작 등에 필요한 장비들을 배치한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발표나 공연 시에는 중앙을 비우고 높이 차에 의한 단차를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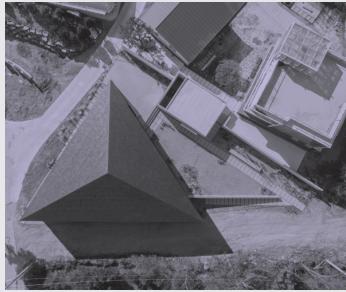
⑥
인문
관



상 북측 통창과 내부 공간
중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진 공간
하 삼각형 꼭지점을 향해 모이는 중목구조

공간이 만들어 가는 변화

도서관의 내부는 서너 달에 한 번 공간 구획을 바꾼다. 아이들이 자주 쓰는 공간은 오히려 구석으로 넣고, 낯선 경험에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한다. 세심하게 고른 가구와 조명, 스파커 등 도서관 내부의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존중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작가님’으로 불린다. 작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아이들은 이곳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들이 모인 공간이라 시끄러울 거라는 우려와 달리 도서관에 들어서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밖에서와는 다른 태도로 행동한다고 한다.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창 너머 변화하는 자연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이들도 치유되고 변해 가길 기대한다. 아이들의 변화와 미래가 공간에 차곡차곡 기록되어 이곳에 오는 다른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안내서가 되는 도서관이 되기를 상상한다.



상 자유롭게 채워지는 중앙 공간
하 세컨찬스라이브러리의 삼각형 지붕